

# ESP에 관한 研究

裴 基 武 · 金 英 喆

## A Study on ESP

*Bae Ki-moo · Kim Yong-chul*

### 〈目 次〉

- |                       |                     |
|-----------------------|---------------------|
| 1. 序 言                | 5. ESP의 重要 Projects |
| 2. ESP의 定義 및 類型       | 6. 結 言              |
| 3. ESP의 來歷            | 7. 參考文獻             |
| 4. ESP의 Course Design |                     |

### Abstract

It is said that in the middle of 1970s, two developments in the methodology of English teaching have been apparent. One of them has been on the problems of the learners who need the language in order to get higher and special education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second has been the recognition that the ability to use the language as a means of communication should be developed in a different way from the traditional way in which linguistic form is emphasized. The former has been developed from ELT/EST and the latter from linguistic structures into communicative activities. When English is taught as a part of general education, it is obvious that communicative abilities emerge from a knowledge of the language system when the needs arise. When learner's aims are definite by reference to specific purposes, however, as in ESP/EST, it is expected that teaching investment will return in the form of effective communicative ability.

This paper intends to define what ESP is and its types and introduce its history, the recent trends in its course design and its recent practices.

### 1. 序 言

1970年 中盤 英語教授法에 두가지 發展이 있었다. 하나는 科學, 工學分野에서 專門教育을 받기 위해 言語를 必要로 하는 學習者의 問題였고, 또 하나는 疎通(communication)의 한 手段으로서 言

語를 使用하는 能力을 從來의 方法이 아닌 다른 方法으로 發展시켜야 한다는 問題였다. 前者는 ELT에서 ESP/EST로 後者는 言語構造(linguistic structures)에서 疎通能力 (communicative abilities)을 培養하는 方向으로 發展하였다.

初中高의 一般教育의 一環으로 英語를 가르칠 때 必要時 言語體系의 知識에서 疎通能力이 自然的으로 發生한다는 假定을 檢査할 直接的인 手段은 없다. 이런 境遇 學習者의 目標은 試驗이 되기가 一般的이다. 反面 特殊目的과 關聯되어 目標가 外部的으로 明示될 때는 ESP/EST의 境遇처럼 教育 投資는 即刻的으로 効果의 疎通能力의 形態로 期待될 수 있다는 것이다.

本 論文에서는 ESP가 무엇이며 그 類型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 沿革과 最近의 教材作成의 傾向과 實踐事例를 紹介하고자 한다.

## 2. ESP의 定義 및 類型

過去에 English for Special Purposes로 불리던 이 用語는 近年에는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로 通用되고 있다. English for Special Purposes는 特殊한 言語를 示唆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쉬우나,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는 學習者의 學習 目的에 焦點을 두고 言語資源(language resources)의 全範圍에 關聯되어 있다.

Mumby<sup>1)</sup>는 ‘special purposes’라는 말을 쓸 때, 目的이 特殊하다는 것은 目的이 普通(ordinary)이 아니라는 것을 暗示하는 것 같이 생각되기 때문에, 異論의 餘地가 있고, ‘special purposes’의 反意의 意味는 ‘general’이 아니라고 한다.

그는 ESP는 學習者와 學習者가 目標言語를 必要로 하는 目的에 焦點을 두어야 하며, 모든 言語計劃은 여기에서 나와야 한다고 主張하고 이 分野의 初期의 言語材料를 批判하고 있다.<sup>2)</sup>

Furthermore, ‘Special English’, which is associated with some of the earlier examples of materials in this field, focuses on the distinctive features of the language, especially vocabulary, that are most immediately associated with its restricted use, e.g. technical terms in agriculture. ESP, on the other hand, should focus on the learner and the purposes for which he requires the target language, and the whole language programme follow from that.

Robinson<sup>3)</sup>도 English for Special Purposes는 特殊한 言語를 示唆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English for Special Purposes는 限定된 言語로 생각되지만,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는 學習者의 目的에 注意를 集中하며, 言語資源의 全範圍를 言及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Mackey<sup>4)</sup>는 ESP란 分明한 實用目的을 위한 外國語의 教授와 學習을 말한다고 다음과 같이 示唆한다.

It (here ESP) is generally used to refer to the teaching/learning of a foreign language for a clearly utilitarian purposes of which there is no doubt.

1) John Mumby: Communicative Syllabus Design, pp.2-3.

2) John Mumby: ibid.

3) Pauline Robinson: ESP, p.5.

4) Ronald Mackey: ‘Language for Special Purposes’, *Edulec* 3.

이 實用目的이란 英語가 補助的 役割을 하는 일에서 成功的인 言語遂行(performance)으로 理解된다. 따라서 ESP는 教授 그 自體가 目的이 아니라 明白한 目標에 대해서 必要한 手段으로서의 英語教授라는 뜻이다.

이 實用目的을 Mackey와 Mountford<sup>5)</sup>는 다음의 세 가지로 區分한다.

- occupational requirements, eg for international telephone operators, civil airline pilots, etc.
- vocational training programmes, eg for hotel and catering staff, technical traders, etc.
- academic or professional study, eg engineering, medicine, law, etc.

한편 Strevens<sup>6)</sup>는 ESP를 넓은 意味로 定義하기를 그 目標과 內容이 教養課程의 범주에서 決定되는 것이 아니라, 學習者의 機能的(functional), 實用的 言語要請에 의해 決定되는 것이라고 한다.

Broadly defined, ESP courses are those in which the aims and content are determined, principally or wholly, not by criteria of general education (as when English is a foreign language subject in school) but by functional and practical English language requirements of the learner.

나아가 그는 ‘English for Science and Technology’(EST)를 其他 ESP와 區分한다. EST 課程은 ‘scientific English’의 많은 內容을 要求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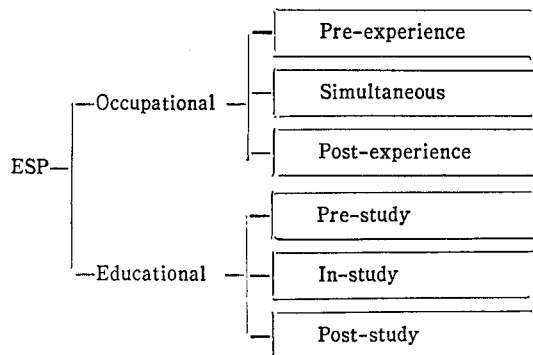
모든 ESP에 適用되는 두번째의 區分은 職業을 위한 課程(occupational course)과 教育을 위한 課程(educational course)이다. 職業을 위한 課程은 그 이름이 示唆하듯이 職業에 關聯되는 課程이다, 職業을 위한 課程의 ESP의 型(types)에는 Strevens<sup>7)</sup>에 依하면, 課程履修의 時點에 따라 세 類型으로 區分된다; a) pre-experience type... 職業에 從事하기 前에 그 職業에 關聯되는 英語를 學習한다. b) simultaneous type... 職業을 익히고 있는 時點에서 그 職業을 위한 英語를 學習하고 있다. c) post-experience type... 이미 職業에 익숙되어 있는 狀態에서 그 職業을 遂行하기 위해서 英語 知識을 첨가하고 있다.

教育을 위한 ESP는 그 目的과 水準에 따라 달라서, 高等教育에서 ‘English for Academic purposes(EAP)는 學問의 研究에 關聯된다. 그는 EAP도 세 型(types)으로 區分하고 있다, a) pre-study type... 學習者가 自己 分野를 공부하기 위해 必要한 英語를 學習한다. b) in-study type... 自己 分野 공부의 한 部分으로 英語를 배우고 있다. c) post-study type... 自己 分野의 공부(母國語로) 이미 끝냈으나 必要에 따라 그 分野에 關聯있는 英語를 공부한다. 이들을 그는 다음과 같이 圖式化하고 있다.

5) Ronald Mackey & Alan Mountford: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p.2.

6) Peter Strevens: New Orientations in the Teaching of English, p.90.

7) Peter Strevens: ibid, p.90.



그는 school-subject ESP를 또 하나의 類型으로 본다. 獨立課程(independent course)와 綜合課程(integrated course)로 區分하고, 前者는 英語를 別個의 學科로 배움을 말하고 後者는 其他 科目을 英語로 배움을 말한다. 그러나 school-subject ESP는 혼치는 않으나 차츰 그 要請이 增加하고 있다고 한다.

### 3. ESP의 來歷

Robinson<sup>8)</sup>은 ESP의 來歷에 대해 다음 사람들의 主張을 引用하고 있다.

J. D. Corbluth는 學習者의 特定한 必要에 無關한 項目(item)을 除外하고 가르친다는 點에서 special purpose teaching은 20世紀初의 Harold Palmer와 Michael West의 研究에 비롯된다고 한다.

Peter Strevens는 language for specific purposes는 Corbluth의 示唆보다는 훨씬 오랜 歷史를 지녔다고 한다. 即 觀光客을 위한 初熟語集이 나온 1576年을 든다. 그러나 言語課程으로는 'German for Science Students'가 special-purpose language teaching의 始初의 形態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라고—그 年代에 대해서는 言及없이—主張한다,

M. L. Tickoo와 Lee kok Cheong은 ESP의 發展을 言語分析과 教材選擇의 研究가 始作된 時點으로 본다.

한편, J. R. Ewer와 G. Latorre는 言語의 使用域(register) 分析의 結果에서부터 ESP는 비롯된다고 한다. 使用域 分析은 어휘目錄(lexicon)의 分析과 統語法(syntax)의 分析의 二 段階로 區分한다.

今年에 와서 高等教育의 普及은 ESP programme의 必要를 急速히 增大시키고 있다. 英語로서 必要한 知識을 科學과 工學의 分野에서 얻고자 하기 때문이다. 1960年代 中盤에 Chile에서 EST의 先驅者의 研究를 효시로 하여 1970年代 中盤에 Saudi Arabia에서의 研究와 The University of Malaya의 English for special purposes project 등 非英語使用國에서의 ESP의 研究는 活氣를 띄고 있는 實情이다.

### 4. ESP의 Course Design

Dell Hymes<sup>9)</sup>의 發想인 疎通能力(communicative competence)에 대한 關心이 높아짐에 따라 language syllabus의 內容에 대한 關心은 더욱 高潮되고 있다. 即 英語를 母國語로 하지 않는 사람이 英語에서 疎通能力이 있게 하려면 무엇을 가르쳐야 하며, 무엇이 學習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二次大戰後의 言語教育의 主流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보다는 어

8) Pauline Robinson, *ibid*, pp. 15-16.

9) Dell Hymes; 언어학 사전, p. 116.

떻게 가르치느냐는 方法論이었으나, 現今 syllabus의 内容이나 作成에 言語教育의 焦點이 쏠리고 있다. 이런 傾向의 要因은 첫째로 the Council of Europe의 成人의 言語學習을 위한 a unit/credit system 計劃에 參加한 Wilkins를 비롯한 여러 學者들의 研究結果이고, 둘째로는 Widdowson, Sinclair, Candlin 등의 discourse 分析 研究이다. Syllabus 作成에 있어서 重要한 點은 學習者의 疎通上의 必要(needs)를 파악하는데 있다고 한다.

近年에 와서 日進月步하는 科學分野에서 先進國들의 技術과 情報(이들에 관한 書籍 및 論文은 大部分 英語로 쓰여 있어서 情報의 交換 및 傳達은 英語로 이루어 짐)를 迅速하고 効率的으로 習得하기 위해서는 common core<sup>10)</sup>의 바탕위에 ESP를 익힐 必要가 생긴다. 따라서 ESP는 最近에 communicative syllabus 作成의 焦點이 되고 있다.

Widdowson<sup>11)</sup>은 지금 ESP에 關해 생각하는 사람들 中에는 두 派가 있다고 본다. 한 派는 우리가 안고 있는 問題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適切히 適用하는 教授法 範圍內에서의 操作上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또 한 派는 우리는 科學과 工學에 關한 疎通(communication)에 대해서는 아직 아는 바가 없으므로 ESP programme를 作成하는 일은 今後의 研究에 달려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It seems to me that there are currently two ways of thinking about EST. One of them would appear to take the view that we already have the means of devising EST programmes and that our problems are essentially *operational* ones within the scope of pedagogy involving the appropriate application of what we already know. On the other hand there is an opposing school of thought which takes the view that we know very little or nothing about the nature of scientific and technical communication, and that the design of effective teaching programmes depends on the findings of research which has yet to be undertaken.

이들 두 派中 前者는 科學 및 工學英語에 特性을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따라서 가르치고 싶은 種類의 英語의 標本에 대한 統計的인 調査를 한다. 그리고 그 標本속의 語彙와 統語上의 項目의 出現頻度を 測定한다. 이렇게 해서 頻度の 重要性和 더불어 言語要素(Linguistic elements)에 무게를 두는 教材를 作成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register와 教材作成에 關한 생각들을 概觀하여 Brumfit<sup>12)</sup>는 register의 分析이 ESP에 기여한 바는 크며, 극히 짧은 短期課程일 경우 言語項目의 과감한 選別과 減縮을 하면 좋은 結果를 낳는다고 主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方法은 傳統的인 構造主義 方法과 다를 바 없으며, 좀더 制限된 言語資料의 標本에 이 方法을 適用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Widdowson<sup>13)</sup>은 이런 register 分析은 어떤 實際談話(discourse)의 標本을 取하고 그것을 構成要素(constituent elements)로 쪼개는 作業으로서 深層構造要素(deep structure elements)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批判하고 있다. 談話を 言語要素로 쪼개놓는 register 分析은 言語體系의 明示로서의 量的

10) John Lyons의 用語로 한 言語의 모든 varieties와 dialects에 共通되는 言語의 特徵의 범위.

11) H.G. Widdowson: Explorations in Applied Linguistics, pp.37-38.

12) C. Brumfit: 'Commonsense about ESP' in Holden (ed), p.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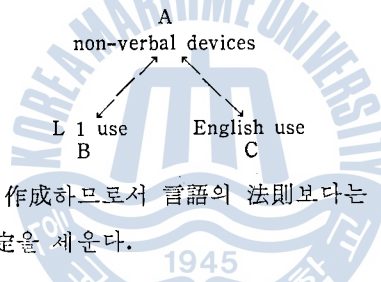
13) H.G. Widdowson: ibid, pp.38-39.

인 言語標本의 特性을 묘사하는데 지나지 않으며, 特定한 경우에 어떻게 言語體系가 疎通活動으로서 質的으로 實現되는가를 보여주지 못한다. 卽 register 分析은 言語使用法의 例로서의 言語標本의 說明은 되지만 疎通을 위한 言語使用의 說明은 되지 못한다.

그는 English language teaching에서 English for science and technology로의 移行은 言語形式(linguistic forms)에서 疎通機能(communicative functions)으로의 移行과는 一致하지 않는다고 한다. 文型과 어휘를 學習하므로써 科學과 工學分野에서의 疎通을 위한 英語使用의 知識이 생긴다고 그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學習者로 하여금 使用法(usage)에서 使用(use)로 移行하도록 하는 狀態(conditions)를 提示할 必要가 있음을 提議한다.

나아가 그의 主張은 EST의 學習者는 이미 若干의 科學의 知識과 若干의 英語知識을 가지고 있으니 이 둘을 습쳐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英語教師는 言語나 使用(use)의 法則을 가르치지 않고 自身들이 가지고 있는 知識을 參照하여 意味를 抽出하는 機會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어떤 言語에서나 科學談話(scientific discourse)의 表面實現(surface realization)은 verbal forms와 公式이나 圖表와 같은—이들은 어떤 言語에서나 共通이다—non-verbal devices의 結合이라고 보고 다음과 같이 圖式化한다.



이 圖式에 依해 練習問題를 作成하므로써 言語의 法則보다는 科學에서의 疎通活動을 어느 程度 할 수 있다고 다음과 같이 假定을 세운다.

The use of non-verbal devices enables us to relate three ways of expressing the same basic concepts and procedures. The student can approach the formulation in English by means of both a non-verbal devices and the formulation in his own language. The amount of support offered by the non-verbal devices and by the student's own language can vary, and a range of interesting and practical excercises be produced: in which rather than learning rules the student is performing some of the activities of science.

그러나 Widdowson의 이 假定은 高等教育에 있어서의 EST에 대한 생각이어서, 한 次元 아래의 教育의 場에서는 適用되기 어려우며, 비록 高等教育의 水準에서도 學習者가 母國語로도 充分한 科學知識을 가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아직은 미진하다는 評을 받고 있다.

ESP 課程의 design에 있어서 疎通能力(communicative competence)의 養成과 더불어 重要視되고 있는 것은 學習者의 動機이다. ESP의 學習者들은 大部分 成人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學習에 대한 目標은 뚜렷하다. 따라서 教養教育에서 처럼 外部的으로 強要되는 教授要目보다는 學習者들이 必要하다고 느끼는 일에 대한 研究가 進行되고 있다.

Robinson<sup>14)</sup>은 이러한 點들을 감안한 ESP 學習者를 위한 課程의 design에 關한 Sculthorpe의 말을 다음과 같이 引用하고 있다.

14) Pauline Robinson: ibid, p.26.

The adult learner on an intensive language course is highly conscious of himself and his purpose. The teaching programme is thus *learner-oriented*, and one must use economically what the adult learner brings to the class.

여기에는 학습자의 동기와 이 동기를 어떻게 충족시켜 주느냐의 문제가 발생한다.

英語教室과 工場 或은 實驗室에서 行해지는 對話 사이에 이루어지는 關係를 學習자가 吟味할 수 있기 때문에 學習의 興味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거나, 이미 學習자가 알고 있는 것을 다루기 때문에 興味를 잃기 일쑤이다. 특히 科學徒들은 言語分析의 複雜性은 좋아 하나 單純한 言語項目的 提示에는 興味를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나 單純한 科學語彙만을 提示하지 말고 大學水準에서는 學科目を 外國語로 가르침으로써 學習의 效果를 보았다는 University of Bath의 例가 있다.

McDonald와 Sagar<sup>15)</sup>는 學習자의 必要(needs)를 確認하는 일은 學習자의 水準과 經驗에 달려 있다고 한다. 學習자가 自己職業에 대한 訓練을 이미 받고 있으면 動機는 強해진다. 即 그는 무엇이 必要한지를 알고, 무엇때문에 必要한지를 알기 때문에 四기능(four skills) 中 어떤 기능을 익혀야 하는지, 目的이 무엇인지, 그리고 必要한 言語範圍 等を 알기 때문이라고 한다.

Richterich와 Chancerel<sup>16)</sup>은 學習자의 必要의 確認은 세 集團이 말아야 한다고 提唱한다. 學習者 自身들, 教育機關, 고용主들이다. 學習에 關한 情報은 學習자와 教育機關의 財政的, 技術的 資源, 目標, 評價의 方法, 教授要目 및 教授法 等を 參照하여 얻을 수 있으며, 學習자는 自己가 받을 수 있는 言語課程에 대해서 可能한 限 알아 볼 수 있고, 이 課程이 自己의 資源, 目標 및 性向에 어떻게 걸맞는지를 알아보도록 권장을 받는다는 것이다. 또 그들은 必要(needs)의 分析은 進行하는 過程이어서 課程 初에단 限定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要因으로 途中에 變更되는 수가 있으니 이런 點을 考慮해야 한다고 主張한다. 나아가 그들은 言語使用의 區分을 1) 言語活動(電話를 건다, 片紙를 쓴다.) 2) 言語機能(language functions, 情報를 要請한다, 論議를 한다, 說明을 한다), 3) 言語環境(language situations, 얼굴을 맞대고, 職場同僚속에서 끼여서)과 4) 四기능(four skills)로 한다. 그들의 마지막 提議는 必要(needs)의 分析을 위한 情報源의 包括的인 調査이다. 情報은 說問과 面接을 통한 調査와 聯業에 대한 適應度, 滿足度에 대한 調査이다.

Richterich와 Chancerel의 必要(needs)에 대한 研究는 言語使用의 여러 次元을 소홀히 한 反面, Munby<sup>17)</sup>의 研究는 言語自體가 主焦點이다. 그의 業績은 purpose-specific language programme의 內容을 明確히 하는 社會言語學的 模型을 作成한 일이다. 그의 模型은 疎通能力(communicative competence)의 目標水準을 明確히 詳述하고 우선 學習자의 必要(needs)의 輪郭을 잡아서 이 必要(needs)를 教授要目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特定 學習자의 疎通必要의 輪郭을 잡기 위해 two set of parameters에 依據 情報를 얻는다. 첫 set는 必要로 하는 ESP의 型과 特定の 教育目的이나 職業的 目的과 關係가 있다. 即 그 言語가 使用될 自然的·心理的 環境, 學習자가 連累될 社會的 關係이다. 이들은 그 言語使用者에 대한 非言語的 束縛(constraints)이다. 둘째 set는 方言(dialect)에 關聯되는

15) P. F. McDonald & C. Sagar: Beyond contextual studies IRAL 13, 1. February 1975.

16) R. Richterich & J. L. Chancerel: *Identifying the needs of adults [learning a foreign language]*, Council for Cultural Cooperation of the Council of Europe, Strasbourg.

17) John Munby: *Communicative Syllabus Design*, pp.28-35.

言語的 資料와 關係가 있다. 必要로 하는 目標水準과 疎通上 생기는 일(communicative event), 生産的(productively)으로 또는 受容的(receptively)으로 參加者(ESP를 使用하는)가 해야 할 일(여기에는 topics와 skills가 關聯된다), 그리고 communicative key이다. 即 參加者가 어떻게 遂行(perform)하느냐이다. 學習者의 必要(needs)의 輪郭을 構成한 後 다음 段階는 specific language skills의 面과 意味의 單位(units of meaning)의 面에서 그 必要를 解釋하는 일이다. 이것이 事實上 Munby의 教授要目的 內譯이다. 即 學習者의 必要(needs)의 輪郭은 language skills와 language functions에 依해 實際의 言語形態(forms)로 實現되고 skills, functions 그리고 言語形態가 教授要目이 된다.

Strevens<sup>18)</sup>는 design의 作業을 네 段階로 나누고 있다.

- 1: 學習者의 必要(needs)를 詳細하게 分析하는 일. 重要한 것은 一般敎養英語가 아니라 點과 學習者가 自身이 必要로 하는 英語에 關한 包括的인 情報, 即 目標, 目的, 必要, 役割(roles) 및 기능(functions) 등을 供給할 수 있다는 立場에서 出發한다.
- 2: 科學 및 工學的 內容의 範圍의 決定.
- 3: 學習者가 必要한 英語가 敎育用인가 或은 職業用인가를 決定하는 일. 敎育用일 경우는 學習者가 英語로 講義를 듣거나 學業을 계속하는데 必要한 四기능(four skills)을 發展시키는 일이고, 職業用일 경우는 이미 特定 職業에 從事하고 있는 사람으로 그 職業上 英語를 使用하기 위해 英語를 學習할 必要가 있을 때이다.
- 4: 英語(ESP)敎育을 科學敎育이나 職業訓練에 앞서 할 것인가, 後에 할 것인가 或은 同時에 할 것인가를 決定하는 일. 이 決定은 a) 學習意欲과 動機 b) 敎師에 대한 學習者의 態度 c) 學習者와 敎師사이의 概念的 장벽의 폭에 影響을 미친다.

ESP의 course design에 談話分析(discourse analysis)과 communicative approach는 큰 몫을 차지한다. 談話(discourse)는 두 가지 뜻으로 使用된다. 그 첫째는, spoken interaction을 뜻한다. 이것은 意味의 單位(unit of meaning)로 分析되고, act, move, exchange, transaction 등의 用語를 쓰는 階層(hierarchy)로 體系化된다. 둘째로, 말로 하는(spoken) 또는 쓰여진(written) 言語의 連續體(stretch of language)를 뜻한다. 이것의 分析은 sentence connection 또는 cohesion의 樣相을 考慮한다.

Candlin과 Murphy<sup>19)</sup>는 談話(discourse)의 研究가 ESP에 있어서 重要함을 다음과 같이 指摘하고 있다.

...the importance of the study of discourse markers (indicators of transition between one act or one move, etc, and another) and of connectives—not because these are special to ESP but because the general ELT has so far ignored them.

Cohesion과 discourse marker의 研究는 ESP와 더불어 發展해 왔으며, 言語學과 言語敎育에 있어

18) Peter Strevens: Teaching 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pp.109-113.

19) CN, Candlin & Murphy: *Engineering discourse and listening comprehension*, A report. University of Lancaster. (1976)



서 또 하나의 추세가 되고 있다.

Communicative approach에 대해서 Allen<sup>20)</sup>은 EST programme은 言語의 疎通的인 見解(commun-icative view of language)를 實行에 옮겨야 한다고 主張한다. Widdowson<sup>21)</sup>도 이 主張을 支持하여 ESP/ESP에 대한 關心은 必然적으로 疎通能力(commun-icative competence)에 대한 關心을 수반한-다고 말한다. 또 그는 學習者는 단지 使用法(usage)를 배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疎通活動(commu-nicative activity)에 關聯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는 일이 重要하다고 한다.

## 5. ESP의 重要 Projcets

ESP 研究의 嚆矢라고 할 수 있는 University of Chile의 Ewer와 Latorre의 研究를 살펴보면 ;

많은 非英語使用國의 教師들은 科學을 專攻하는 學生들에 依해 要求되는 英語를 教授하는 問題에 直面하게 된다. 이에 對應할 必要의 理由中의 하나는 英語가 科學의 主要國際語가 됐다는 點이고, 둘째로는 英語가 母國語인 科學 및 工學 專門家들이 發展途上國을 訪問하는 일이 急増했다는 點, 셋째로는 發展途上國의 科學徒들이 英語使用國으로 留學하는 일이 많아졌다는 點이다. 이런 問題의 解決을 위해 科學 및 工學 專攻生들에게 ESP를 가르치기로 하고 세가지 일에 着手했다.

準備해야 할 言語材料의 種類

包舍되어야 할 材料의 量

이들을 提示(present)할 方法

1) sentence-pattern, structural(functional) word와 모든 科學에 共通되는 non-structural word로 이루어지는 基礎 科學英語가 있다는 것을 認識하고 實際로 科學書에 使用된 英語의 빈도 分析을 했다. 分析을 위해 多少 粗雜한 感은 있으나 많은 標本을 取했다. 科學書의 모든 科目을 包舍시킬 뿐 만 아니라 모든 文體 및 sub-register를 包舍시켰다. 標本은 綜合的이었다. 科目에 있어서는 解剖學에서 火山學에 이르는 科學의 主要分野를 擇했다. 領域에 있어서는 序論 性格의 大學教材, 高級教材, New Scientist or Discovery와 같은 半通俗的인 雜誌 및 專門的인 論文 등을 擇했다. 科學英語의 sub-register에는 指示, 描寫說明, 假說, 要約 等이고, 口語體(informal oral)인 것은 放送對話에서 求했다. 量的인 面에서 3百萬 單語를 넘었으며, 最近 20년에 쓰여진 것이었다.

2) 包舍시켜야 할 材料의 量을 考慮할 때 關係되는 여러 教育機關에서 配當돼 있는 時間이 問題가 된다. 配當時間數는 60時間에서 120時間까지 多樣하나 一般적으로 매우 非效率적으로 配當돼 있었다. 이런 點을 基礎로 해서 다음의 材料를 擇하기로 決定하였다.

모든 主 文型(structures);

모든 主된 structural words(豫測했던 것보다는 많은 詞 것으로 判明되었고, 約 300語가 最終적으로 擇해졌다);

20) JPB. Allen: English, Science and language teaching: the Focus approach *Edutec* 9. 1975.

21) H.G. Widdowson: 'EST in theory and practice', in British Council 1979.

22) J.R. Ewer & G. Latorre: 'Preparing an English Course for Studies of Science.' *ELT journal*, 21.3. May 1967.

가장 빈번히 使用된 語構成裝置(word-building devices)…接頭辭와 接尾辭; 約 900語의 non-structural vocabulary.

역기서 發見된 것은 豫想外로 單純過去時制(past simple tense)가 많았다는 것이다(비록 現在時制가 過去時制보다 3倍나 더 빈번히 使用됐지만). 그리고 'ing' form과 過去分詞도 빈번하였다. 受動形도 많았으나 豫想했던 것보다는 적었다. 재미있는 點은 敘述(statements)를 修飾하기 위해 많은 structural words가 使用되고있 었다는 것이다.

3) 이렇게 擇해진 材料를 提示하는 方法은 다음과 같이 判斷됐다.

- (a) 單純한 科學文의 選集으로는 不適當하다: 適切히 組織되고, 段階的인 課程이 必要했다.
- (b) 專攻 공부의 壓迫때문에 學生들은 英語學習의 時間이 不足했다: 그래서 課程은 能率的으로 編成해야 했으며 不必要한 것은 極少化시켰다.
- (c) 大部分의 項目이 생소한 것이어서 많은 反復과 再提示가 必要했다.
- (d) 口語(oral)活動에 強勢를 두어야 했다.
- (e) 모든 科學徒들에게 興味있도록 만들어져야만 했다.
- (f) 教材는 個人的 科目이나 科學全體에 걸쳐 學生들의 興味를 刺戟하도록 提示되어야 했다.

이런 原則을 念頭에 두고 教材는 12單元으로 짜여지고 各 單元은 다음의 것으로 構成됐다.

- (i) A Reading Passage. 基礎項目이 많이 包含되도록 했다. 特定科目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學生들에게 興味를 줄 수 있는 主題가 擇해졌다.
- (ii) A Word Study Section. Reading passage에 나오는 어휘의 復習, 練習 그리고 어휘의 增進을 꾀했다.
- (iii) A Structure-Study Section. Reading passage에 나오는 主要構文의 簡單한 說明과 適切한 練習問題와 substitution table이 담겨 있다.
- (iv) A Discussion and Criticism Section. 이것은 두 가지 目的을 考慮하여 짜여졌는데 하나는 學生들에게 reading passage나 練習問題에 나오는 theme을 두고 自由로히 英語로 말하는 機會를 만들어 주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위 (f)의 目的을 達成시키려는 것이다.

遲進學生들에게 餘分の 듣기 訓練을 시키기 위해 reading passage를 錄音했다. 各 passage를 意味群으로 나누어 Spain語로 解說을 하고 英國人으로 하여금 읽게하고 마지막에는 美國人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읽게 하였다.

위의 單元에 첨가해서 다음과 같은 補充教材가 주어졌다: non-structural word의 基礎辭典, 機能에 따라 分類된 structural-word의 表, 가장 흔한 接頭辭와 接尾辭의 表, 科學書에 쓰이는 記號, 英國과 美國의 重量과 測定附錄 등이었다.

以上과 같은 準備로써 約 一年間의 實驗으로 아래와 같은 잠정적인 結論을 얻었다. 時間配當을 長期間에 걸쳐 늘어놓지 말고 短期間에 많은 時間을 集中하는 것이 效率的이다. 둘째로 下級學年에 科學英語를 가르치는 것은 不適當하다. 왜냐하면 脫落生이 많이 생기고 學生들이 母國語로도 大學의 科學講義를 들을만한 水準에 있지 않다. 따라서 二學年이 適當하다고 본다. 셋째로 目標로 하는 環境(target conditions)에서 實際로 쓰는 英語를 가르칠 것. 即 人工的인 教材가 아니라 實狀況에

서 수집한 教材라야 한다.

다음은 The University of Malaya의 English for Special Purposes Project<sup>23)</sup>의 概要이다.

이 project가 始作되었을 때(1974) 모든 各級 學校에서 英語이었던 教授用語가 Malay語로 交替되고 있던 中이었다. Malay語로 教育을 받은 大學生이 最近의 科學과 工學의 發展에 接近하려면 高度의 英語의 能力이 必要했다. 이를 解決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基礎調査를 實施했다.

1. 學生들에 대한 說問
2. 語學教授들에 대한 說問
3. 科目擔當教授들에 대한 說問
4. 學生, 語學教授 및 科目擔當教授와의 面接
5. 읽기 成就테스트
6. Some diagnostic tests.
7. 英國의 ESP 專門家들과 討議
8. 標本教材의 事前테스트

學生들이 說問과 面接에서 준 情報은 英語가 重要하다는 것은 認識하지만 英語에 貴重한 時間을 쏟을 動機는 낮았다. 그리고 口語英語가 그들의 將次의 職業에 利로울 것이라고 判斷하고 있었다. 教材의 約 40%가 그들의 專攻과 關聯지어질 것을 提案했다. 語學教授들도 學生들의 提案에 贊成했다.

教材는 다음과 같이 構成했다.

- Unit 1...Reading for Meaning (common core)
- Unit 2...Strategies for Reading (common-core)
- Unit 3...Reading projects: Science (subject-specific)
- Unit 4...Spoken Interaction (common-core)

學習에 들어가기 前에 學習의 方法이나 內容만큼 心理的 자세와 學習에 대한 準備가 重要하므로 學生들로 하여금 배우기를 願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대로 배우기를 願하도록 說得하는데 最大의 努力을 기울였다.

위의 4單元中 筆者의 關心事인 Spoken Interaction을 살펴 본다.

이 單元을 위한 學生들에 대한 說問에서 發見된 것은, 첫째 學生들은 口語英語에 能通하게 되는 일에 강한 動機를 가졌으며, 말로 疎通하는 能力을 英語能力으로 評價하는 傾向이 있었다. 둘째 疎通을 고무하는 더 挑戰的이고, 機能的(functional)이며 興味있는 方法이 考案되어야 했으며, 셋째 role-playing, problem-solving 및 language game 등과 같은 活動이 文型練習 보다는 더 강한 動機를 준다는 것을 알았다.

教材는 다음과 같이 編成하였다.

이 單元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 다음의 네가지 考慮를 하였다.

23) The University of Malaya English for Special Purposes Project, The British Council, 1980.

	LANGUAGE FUNCTIONS	ACTIVITIES		
		Topics/ Notions	Mode	Description
Phase 1 Lesson 2	Asking for and giving information	Shapes, properties, dimensions	paired work	Competitive game based on the Twenty-question game format. The activity encourages the use of effective and relevant questions by limiting the number of questions allowed. Visual for talk is in the form of a classification chart (Tree-diagram) on common-geometrical shapes.
Lesson 7	Describing and Identifying; Asking for and giving clarification	Spatial relations	paired work	Cooperative game with partners using complementary sets of visuals. Materials have built-in alternating turns for describing & identifying. Unfamiliar language items provided.
Lesson 10	Asking for information; Describing; Requesting Thanking.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location	group work	Competitive game using a deck of cards containing nine sets of four similar-looking diagrams or groups of objects. The game requires recognition and accurate descriptions of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Players attempt to collect as many sets as possible to win the game.

1. 學生이 말하는 時間을 極大化
2. 教師의 助力的 極大化
3. 疎通을 刺戟하는 活動을 極大化
4. 成功을 위한 機會의 極大化

學生間的 疎通을 極大化하는 努力으로 教師가 말하는 時間을 줄이고, 傳統的 學習過程에서 볼 수 있는 教師中心의 活動은 피했다. 教師의 助力는 相談役과 案内者와 [같은 學生間的 相互作用(inter-action)을 容易케 하는 일이다. 疎通을 刺戟하는 活動은 學生中心의 活動과 補助器材로서 學生들로부터 特定한 目的을 위해 言語를 使用케 (make use of language) 하는 일이다. 成功을 위한 機會란 學生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과 그것을 正確하게 말하는 일을 도우는 일이다.

이 單元을 다루어 얻은 結論은 學習者의 能力에 알맞는 教材를 編成했다는 點에서 成功의 이었고, 職業을 目的으로 하는 口語英語를 위해 特別히 教材를 作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 6. 結 言

ESP란 1) 學習者의 特定한 必要(needs)를 充足시키기 위해 考案된 것이며, 2) 主題(themes)나 話題(topics)에 있어서 選定된 職業이나 學習分野에 關聯되어 있고, 3) 言語內容(language content)에 있어서 選擇의이고, 4) language skills에 있어서 制限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教材는 學習의 必要(needs)를 감안하여 構成하되 內容은 人工的인 것이 아니라 職場이나 學校의 實狀況에서 일어나는 일을 담아야 한다. 即 authentic 한 것이라야 하겠다. 이들 內容을 가르침에 있어 教師의 役割은 案内者나 相談役이 되어 指示나 說明은 最少限으로 줄이고 學習者로 하여금 自由로 討論하고 發表하는 機會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 參 考 文 獻

1. Allen, JPB: English, Science and language teaching; The Focus approach *Edutec* 9. 1975.
2. Brumfit, C: 'Commonsense about ESP' in Holden (ed) Pergamon Press, Oxford, 1979.
3. Candlin, CN & Murphy, D: *Engineering discourse and listening comprehension*, A report, University of Lancaster, 1976.
4. Ewer, JR & Latorre, G: 'Preparing an English Course for studies of Science'. *ELT journal*, May, 1967.
5. Hymes, Dell: 언어학 사전, 한신문화사, 서울, 1982.
6. Mackey, Ronald & Mountford, Alan: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Newbury House, Massachusetts, 1981.
7. McDonald, PF & Sagar, C: Beyond contextual studies *IRAL*13, February 1975.
8. Munby, John: *Communicative Syllabus Design*,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78.
9. Richterich, R & Chancerel, JL: *Identifying the needs of adult learning a foreign language*, Council for Cultural Cooperation of the Council of Europe, Strasburg, 1978.
10. Robinson, Pauline: *ESP*, Pergamon Press, Oxford, 1980.
11. Strevens, Peter: *New Orientations in the Teaching of English*, Pergamon Press, Oxford, 1980.  
 \_\_\_\_\_ : *Teaching 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12. The University of Malaya, *English for Special Purposes Project*: The British Council, 1980.
13. Widdowson, HG: *Explorations in Applied Linguistics*, Oxford Universtiy Press, 1979.

